

## 달아오른 IPO 시장

# 약진하는 1월 새내기株, 공모가 대비 평균주가 96%↑

1월 상장 4개 기업, 공모가 상회  
유동성 장세… 고평가 가능성 주의  
“기대심리보다 기업가치 집중해야”

1월에 상장한 새내기주(株) 주가 가공모가를 웃도는 등대체로 준수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올해도 기업공개(IPO) 시장이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강한 유동성을 보이는 장세에서는 단순 기대 심리가 아닌 기업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상장한 5개 기업(스팩 제외)의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등락률은 종가 기준으로 상장 첫날 96.73%, 1일 7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씨앤투스 성진만이 공모가를 하회했으나 나머지 4개 기업은 모두 공모가를 한참 웃돌았다.

먼저 1월 21일 상장한 엔비티는 공모가(1만9000원) 대비 시초가 등락률

〈올해 1월 상장한 5개사의 공모가 대비 주가등락률〉

회사명	상장일	공모가	상장당일				최근 거래일(2월1일)	
			시가	등락률	종가	등락률	주가	등락률
엔비티	1월 21일	19,000	38,000	100	36,500	92.1	26,500	39.47
선진뷰티사이언스	1월 27일	11,500	23,000	100	29,900	160	26,700	132.17
씨앤투스성진	1월 28일	32,000	31,700	-0.93	28,700	-10.31	23,850	-25.46
모비락스	1월 28일	14,000	28,000	100	36,400	160	32,050	128.92
핑거	1월 29일	16,000	32,000	100	29,100	81.87	28,450	77.81

(단위 : 원, %)

/한국거래소

과 상장 첫날 종가 등락률이 각각 100%, 92.10%를 나타냈다. 최근 거래 일인 2월 1일 기준으로는 39.47% 뛰었다. 지난 27일 상장한 선진뷰티사이언스는 공모가(1만1500원) 대비 시초가 와 첫날 종가 등락률이 각각 100%, 81.87% 상승했으며 1일 기준으로는 77.81% 뛰었다.

반면 씨앤투스성진은 시초가와 첫날 종가 등락률이 각각 0.93%, 10.31% 하락하며 공모가(3만2000원) 을 밑돌았다. 1일에도 25.46%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모비락스의 경우 상장 당일(1월 28일) 시초가와 첫날 종가 등락률은 공모가(1만4000원) 대비 각각 100%, 160% 뛰었다. 1일 기준으로는

128.92% 올랐다. 1월 29일 상장한 평거도 공모가(1만6000원) 대비 시초가 와 첫날 종가 등락률이 각각 100%, 81.87% 상승했으며 1일 기준으로는 77.81% 뛰었다.

반면 씨앤투스성진은 시초가와 첫날 종가 등락률이 각각 0.93%, 10.31% 하락하며 공모가(3만2000원) 을 밑돌았다. 1일에도 25.46% 떨어지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5개사는 앞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

경쟁률에서도 연달아 흥행한 바 있다. 5개사의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 평균 경쟁률은 각각 1345.39대 1, 1896.87 대 1을 기록하며 상장 후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2개사를 제외하고 IPO가 전무했었다. 올해는 1월부터 여러 기업들이 상장함에 따라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IPO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장세에 시장 흥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고평가 논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IPO 시장은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3년래 최고 수준의 공모금액을 기록했음은 물론, 공모 투자수익률도 최근 10년래 최고 수준이었다”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IPO 기업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강한 유동성이 뒷받침되며 시장 흥행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고평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순 기대 심리만으로 시장에 참여한다면 상장 직후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마음고생이 지난해와 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 역대 최대 기업상장 예고… 3월까지 20개社 도전

2월 11개사, 3월 9개사 상장 앞둬  
투자업계, 1월 이어 2월도 호황 전망

올해 1월 기업공개(IPO) 시장이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2월에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장 예정인 기업이 대기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떨 전망이다. 업계에선 2월 상장 기업 수와 공모 금액이 각각 2003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월 공모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총 20개사(스팩 포함)로 나타났다. 20개사 중 2월에 상장할 기업은 11개사, 3월 상장

할 곳은 9개사였다.

이 가운데 상장을 위한 수요예측을 마치고 2월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은 솔루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와이더플래닛, 레인보우로보틱스, 신한제7호스팩, 아이퀘스트, 하나금융스팩17호, 피엔에이치테크 등 8개사다. 이들 대다수가 희망공모가 상단을 초과해 공모가를 확정 지었다.

솔루엠은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가 1만 7000원으로 희망공모가 상단을 초과해 확정됐다. 공모금액은 1088억원이며 지난 2일 상장했다. 프레스티지바

이오파마의 확정공모가는 3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됐으며 공모금액은 4909억원이 모였다. 오는 5일 상장 예정이다. 와이더플래닛의 공모가도 희망공모가 상단으로 1만 6000원, 공모금액은 120억원이다. 이 날 상장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확정공모가가 희망공모가보다 높은 1만원이었다. 공모금액은 265억원이다. 아이퀘스트와 피엔에이치테크도 확정공모가가 각각 1만1000원, 1만8000원으로 희망공모가를 초과했다. 이들 기업의 공모금액은 각각 220억원, 96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상장 예정일은 오는 5일과

16일이다.

2월 상장 예정 기업 중에는 스팩도 2개사도 포함됐다. 신한제7호스팩과 하나금융스팩17호의 확정공모가는 2000원이며 공모금액은 각각 80억, 120억원이다. 상장 예정일은 4일과 10일이다.

이밖에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유일에너지테크, 오로스테크놀로지, 뷔노, 사이버원, 네오이뮨텍, 프레스티지바이오피스, 나노씨엠에스, 자이언트스텝, 하나미스트스팩7호, 바이오다인, IBKS스팩15호, 씨아랩 등 12개사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 1월 IPO

시장이 흥행에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2월에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과 2002년에 상장 기업 수가 각각 10개사, 24개사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며 “올해 2월 IPO는 2003년 이후 동월 대비 최고 기업 수가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IPO 시장의 예상 공모금액은 6500억~7000억원대를 형성하고, 예상 시가총액은 3조6000억~3조8000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모금액 기준으로는 과거 2006년 9504억원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2006년 12조9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재인 기자

## 美 개미가 흔드는 銀… 최고가 경신 하루만에 10% 폭락

게임스톱 다음 타깃으로 은 선택

은(銀)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10% 넘게 폭락하는 등 심상치 않은 가격 변동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스톱 사태’에 이어 미국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은 집중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은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0.25% 급락한 온스당 26.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는 종가 기준 29.7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013년 2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은 가격이 치솟자 주요 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은 생산업체의 주가도 동시에 급등했다. 2일 기준 세계 최

대 은 ETF인 아이셰어 실버 트러스트(SLV·iShare Silver Trust) ETF는 7.08% 상승했다. 은 생산업체인 쿠어마이닝과 팬 아메리카 실버의 주가도 각각 23%, 12% 급등했다.

갑작스러운 은 가격 상승의 이유로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와 미국 개미들이 꼽힌다. 월스트리트베츠라는 주식 관련 대화방에서는 ‘정부가 은 시세를 누르고 있다. 은 매수에 나서자’는 글이 대거 등장했다. 트위터에서도 ‘실버스퀴즈(#silversqueeze, 은 쥐어짜기)’라는 해시태그의 글들이 공유되고 있다. 대형 은행과 정부가 은 시세를 누르고 있다며 은 관련 상품들을 집중 매수해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자는 주장이다.

미국 개미들은 최근 게임스톱 등 해

어올렸다. 이들이 다음 타깃으로 주요 원자재 상품인 은을 선택한 것이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은 은 가격 상승에 따라 은 선물 계약을 위한 증거금을 기존 1만4000달러에서 1만6500달러로 18%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은 가격 상승세가 하루 만에 주춤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주요 원자재 상품인 은은 게임스톱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크고, 관련 상품도 다양한 만큼 은을 선택한 것은 잘 된 선택이라는 비판론도 나왔다.

반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



2일 서울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모습. /뉴스1

## CU, 업계 최초 ‘실버버튼’ 10가지 주제 콘텐츠 제작

» 1면 ‘예능인가 광고인가…’ 서 계속

특히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물론 기업 호감도 역시 크게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임직원, 가맹점주 및 근무자들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씨유튜브는 2019년 하반기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쳐 고객과 소통하는 창구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유튜브 실버버튼을 받았으며, 신상품 소개, 이벤트 안내 등 10여 가지 주제로 자체제작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 수는 41만명을 넘어섰으며 편의점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